

건축문화 사랑방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2.03.148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02

시론

전문직인 건축사로 살아가기

03

종합

사랑에서 _ 후진적인 국민주택 규모와 발코니 확장의 함정
건축사 Q&A
건축사 만평

04-05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제56회 정기총회' 대면총회로 개최
전북건축사회, 최첨단 탄소소재 활용 건축 제품 개발 기업과 협약
대한건축사협회 신임감사에 전북 김남중 건축사 선출



06-07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우수건축사회 표창 수상
광주건축사회, 건축사공제조합 제7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 수상
광주건축사회, '2022년 제35회 정기총회' 서면총회 진행

08-09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2022년도 제56회 정기총회' 위임총회로 진행
전라남도, 농어촌 주택개량 저리 융자 지원
전라남도, 드론 활용 스마트 행정 추진

10

설계경기

「땅끝 해남을 리폼하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 설계공모

11

종합뉴스

2022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오는 3월 19일 실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행정, '클라우드 세움터'로 편리해진다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설계공모 개선 TFT 토론회 개최

12

독자광장

책 소개 _ 함께 산다는 것
세상사는 느낌 _ 다시 시작된 코로나 시대의 학교생활, 그리고 변화된 모습
한 편의 시 _ 가시속의 魅力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전문직인 건축사로 살아가기

전문가는 '기술·예술·기타 특정 직역에 정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한다. "전문가는 자신이 아는 게 그리 많지 않고 말하고 사기꾼들은 반대로 모든 것을 알거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¹⁾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몇 년 전 김진명의 소설 '천년의 금서'를 읽다가 전문직의 자존심에 대해 서술한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정확한 구절은 기억나지 않지만, 전문가라면 논리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게 전문가의 본질이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 시대에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은 참으로 많다.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하나의 전문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럼에도 건축사는 명실상부한 전문인이다.

건축사로 살아가기 시작한 지 만 15년이 지났다. 건축사사무소 개소 초기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만나는 건축주 및 관련인들과의 만남 및 수행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수행하는 것이 그저 보람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베테랑이 되어 모든 것을 수월하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까닭인 듯하다. 지금, 그때 예상했던 10년이 훌쩍 지났고 어느새 푸른 꿈의 새내기 건축사는 중견 건축사가 되어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여전히 버벅거리는 건축사이다. 그 사이 환경과 조건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내 나이에서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헉 소리가 나는 시간이다.

15년을 건축사로 지낸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하였는가? 나는 내면적으로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5년이란 시간이 정말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나 달력이 지나가 있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 15년은 13만 1,400시간이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정말 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103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인생을 3가지 시기로 구분하였다. -배우는 시기, 직장생활(경제활동)을 하는 시기, 정년퇴직 후의 시기- 100세의 노교수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기는 퇴직을 한 후의 시기이며 자신은 80쯤 되었을 때 철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김형석 교수의 말이 맞다면(공자는 40이면 불혹,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했지만) 다행히 나는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나는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작은 사무소나마 책임져야 하는 직원들이 있고,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서는 어느새 임원을 역임할 나이가 되었고, 각종 사회활동도 하고 있다. 업무에 능숙해짐을 스스로 느낄 때도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업을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제각각의 조건이 있고,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만의 우주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입장마다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건축사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총괄적 입장에서 수행하는 일을 한다. 건축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이며, 나아가 장차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닌다.'



신영은 논설위원 / 건축사사무소 사람 대표 건축사
saramfirm@naver.com

신영은 건축사는 풍경과 어우러지는 건축을 꿈꾼다.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면 도시는 새로운 가로풍경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기존의 풍광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정돈되고 발전되기를 소망하며 건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건축사사무소 '사람'을 개소하여 울산5동주민센터(2012), 첨단배드민턴장, 남구청 민원실동, 서구 사회적가치혁신지원센터 등을 작업하였다.

라고 「건축기본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전문인인 건축사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건축은 가치를 발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더불어 각 직역에서의 전문가들이 전문가적 책무를 다하며 생활할 경우, 우리 사회는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의 중산층의 기준은 ① 페어플레이를 할 것. ②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③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④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⑤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²⁾이고, 한국에서의 중산층의 기준(2017년)은 ①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②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③ 자동차 2000cc 이상. ④ 예금잔고 1억 원 이상. ⑤ 1년에 해외여행 1회 이상이라고 설문조사³⁾ 되었다고 한다. 영국은 정의롭고 한국은 경제적 관점만 보는 것이 사실일 수만은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을 언급할 때 사회적 책무와 행동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경제적 기준으로만 중산층을 구분하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건축사들은 결코 경제논리만 건축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건축사는 5년제의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만 시험을 볼 자격이 있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다른 어느 과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학습량을 소화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 작은 예로 건축학과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적어도 열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아는 상태인 것만 봐도 그 학습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그에 보답되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건축사들이 업무량에 비해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경우는 개업 이후 상당히 열심히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고 자부한다. 시간적으로나 열정적으로나 이보다 더 열심히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노력에 비해 성과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중년의 나이가 됨에 따라 건강관리도 해야 한다고 몸에서는 신호를 보낸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을 마치 현답인 것처럼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건축사 일이 보람도 있고 재미가 있기도 하긴 하다. 그렇지만 마냥 여태까지처럼 열심히, 날을 새 가면서까지 일하기는 조금 지치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직업군보다도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가 전문직으로서의 대우를 명실상부하게 받으며,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건축물을 한 땀 한 땀 공들여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시급히 오기를 희망한다. 건축설계는 영웅이 힘으로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설계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품질은 차이가 난다.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온전히 힘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축문화는 한층 발전될 수 있으리라.

1) 라피 레츠퍼, 뇌과학과 기술분야의 전문리porter
2)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
3) 한국 직장인 설문조사, 조선일보. 2017. 08. 30.

광주건축사협회 회원님을 위한 깜짝 이벤트

마이다스캐드 뉴스레터
신규 구독하면 푸짐한 선물증정!

매주 유용하고 트렌디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midas CAD

- 신청대상** 마이다스캐드(midas CAD) 뉴스레터 미구독하신 건축사님
- 신규구독혜택** 캐드 사용권 (3개월) 100% 증정
갤럭시 버즈 프로 (무선 이어폰) 5명 추첨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선착순 100명 증정
- 신청기간** 2022.02.21 - 03.31 까지



이벤트 신청 방법

핸드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이벤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가장 하단 신청 폼(Form)을 작성하시면 신청 완료!

사랑에서 _ 여든일곱 번째

건축사 Q&A

후진적인 국민주택 규모와 발코니 확장의 함정

한동안 블랙홀처럼 모든 사회적 이슈를 빨아들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쟁점의 핵심이 모호해서 동의하기 힘들었고, 오히려 그 문제를 쟁점화시킨 자들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웠으며, 그에 부화뇌동한 자들의 우매함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하나의 예로, 불과 수개월 전에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대한 관심도 단기간에 사그라들었고, 하물며 선거 준비 기간에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마저도 너무도 쉽게 뒷전으로 밀려 버렸다. 그들이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던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었는데도 말이다. 출마자든 투표권자든 그러한 대형사고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관심이 있을까? 과연, 그 모든 이들은 도대체 주거용 건축물의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이라는 이슈가 대선판을 흔들 정도였을까?

사실, 주거용 건축에 대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에 근본적인 원인부터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중에서 먼저,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논쟁을 제안한다. 1972년 도입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주택 공급과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정책과 공급에서부터 세금 부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었고, 급기야는 도시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생활 수준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지난 50년 동안 한치의 변함도 없는 국민주택 규모가 결코 정상적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다음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발코니 확장은 그에 대한 풍선효과로 불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본디 발코니는 실내공간이 아니라 실외공간이다. 그래서 주거전용면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발코니에 창을 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실내처럼 활용하는 '발코니 확장' 행위가 만연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였지만, 워낙 많은 아파트 거주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바람에 단속도 제재도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러한 사회적 흐름에 떠밀려 2006년부터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되었고, 그 이후 주거건축물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영향을 받았다.

실질적인 주거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었으나, 마당이 없는 고층 아파트에서 발코니가 가지고 있었던 옥외공간으로서의 순기능은 급격히 사라졌다. 또한, 허가도면에서 존재했던 발코니를 다른 용도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그 점을 고려해 미리 거실이나 방을 작게 설계하는 기이한 현상도 비밀비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서류상 국민주택 규모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큰 전용면적을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주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에 편승해 발코니 확장 옵션을 명목으로 분양가격을 인상하는 꼼수까지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주거 전용 부분과 발코니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구조적인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현실이 이러함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와 산출방식,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자문위원 _ 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건축사 자격 갱신 도래

건축사법 제18조 제7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 2차 갱신등록 기한이 2023년에 도래. 건축사등록원에서 실무교육 이수시간을 확인하시어 만료일 전까지 교육이수 및 갱신등록 필해야 함.

자격등록 만료일까지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움터 인·허가 업무가 불가능함.

□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 2023. 05. 08.(기존 1차 갱신자 기준)

□ 갱신신청 가능기간 : 2022. 11. 09. ~ 2023. 05. 08.(6개월 이전부터)

※ 갱신조건 : 실무교육 40시간 이상 이수(윤리 5시간, 전문 25시간 이상, 자기계발 10시간 이하)

건축사별 실무교육 이수현황 확인은 '건축사등록원(https://www.kirakarb.or.kr) / 로그인 / 건축사 / 실무교육이수현황'에서 교육 종류별 교육 이수 시간 및 미이수 시간 확인 가능함.

건축사 만평

정태호 건축사 작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광주)/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법무법인 가현 www.welaw.co.kr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최정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85번길 11-9 T . 062-236-0222 F . 062-236-0608 M. 010-3000-6028 E . choi092@hanmail.net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상속·이혼·후견)전문변호사
• 광주 인성고 졸업, 전남대 법대 및 대학원
•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민사법학회 감사
• 광주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
• 광주 동구청 공직자윤리위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 전남개발공사, 광주안과병원 자문변호사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박종호
부편집인: 박주현,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전담기자: 곽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임태형,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월: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만성동 교회

조은석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JCN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2, 401호
Tel. 063-283-0979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76-1 / 대지면적 : 1,034.7㎡ / 건축면적 : 605.669㎡ / 연면적 : 2,485.464㎡ / 건폐율 : 58.54%
용적률 : 149.74%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용도 : 종교시설(교회)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 주요 마감 : 화강석, 마천석, 로이복층유리

• 현황 분석

도로는 남측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이 10m 도로에 면하고 동서측은 경사진 도로이고 북측이 평지여서 북측을 접근성이 좋은 주차입구로 하였다.

• 형태 및 배치 계획

주변의 어수선향 속에서 도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조형미를 갖춘 단아하고 절제된 형태를 지향하였다. 특히 지붕면의 축에 역동성을 반영하여 종교시설의 지향성을 표현하고 지역사회로의 개방감을 위해 계단실에 커튼월 창호를 계획하였다.

• 재료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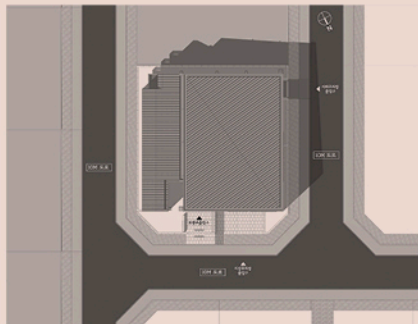
중심성이 내재된 절제된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불륨의 중후한 무게감과 외피의 색감과 질감의 간결하고 긴장된 재료적 대비감을 필요로 한다.

이에 건물 전체를 회고 거친 불륨으로 강조하고자 화강석(도드락다듬)을 주조로, 창호 프레임 및 유리, 마천석(물갈기) 등 반사되고 매끄러운 진한 회색면을 보조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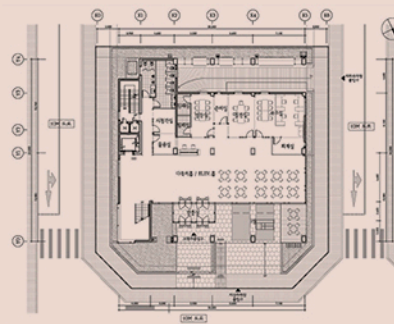
• 공간 계획

관리 및 운영, 예배의 기능으로 구분된 프로그램을 3개 층으로 분산 적용하였고, 개방된 공용공간(코아, 로비, 다목적홀, 휴게공간)을 통해 수직적으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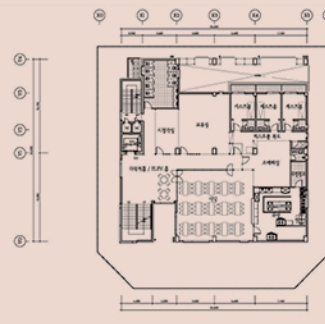
층별로는 전면으로 공적인 공간을, 후면으로 사적인 공간을 주로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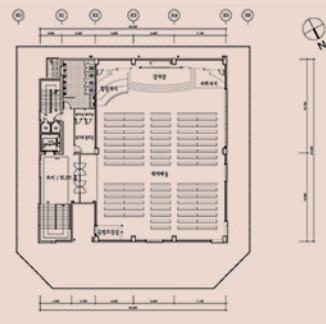
배치도



지상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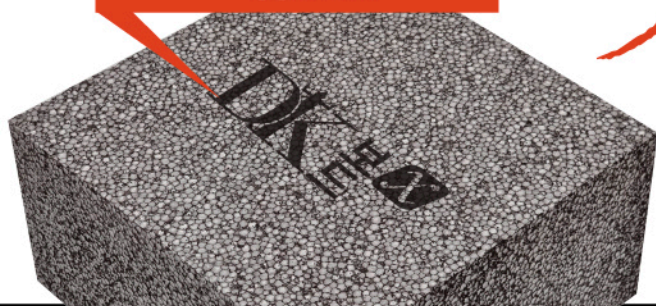
지상 2층 평면도



지상 3층 평면도

EPS 준불연 단열재

DK | 쥐디케이보드 × HDC 현대EP
공동연구개발



행명



준불연 EPS 단열재

DK본 X

DK보드X는 10여년에 걸친 준불연 EPS 개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쥐디케이보드가 심재시험방식으로 개정된 건축법에 맞춰 HDC현대EP 울산PS연구소와 공동개발한 새로운 준불연 단열재입니다.

준불연 단열재 DK보드

검색

DK

주대 광 판넬
쥐디케이보드

고객센터 1855-2240

전북건축사회, '제56회 정기총회' 대면총회로 개최

오는 3월 22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감사선거에 1인 출마

전북건축사회(회장 박진만)는 오는 3월 22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호텔 신관 5층 그레이스홀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대면총회로 개최한다.

이번 대면총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인 회원들만 참석이 가능하다. 총회 참석자 전원 백신패스를 확인할 예정이며,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2021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기타사항' 등 총 4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사선거에는 전주지역 (유)에일 건축사사무소 권중곤 건축사가 단독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입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이력 및 소견은 전북건축사회 홈페이지(<http://jbkira.kira.or.kr/>) 알림광장 공문시행 227726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건축사회, 최첨단 탄소소재 활용 건축 제품 개발 기업과 협약

지난 2월 8일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건축분야에 탄소소재를 적극 활용



전북건축사회(회장 박진만)는 지난 2월 8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탄소소재를 활용한 건축 제품 개발 향토기업 (주)에니에스(회장 전상문)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건축사회는 건축사들이 필요로 하는 탄소소재 건축 제품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 뒤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 내기로 한 것이다.

건축분야 탄소소재 부품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주)에니에스를 비롯한 전북의 탄소기업들이 협력한 뒤 건축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전북건축사회 박진만 회장은 "지역의 전략산업인 탄소산업과 업무협력을 통해 건축분야에 탄소소재를 적극 활용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며 "탄소제품을 활용한 제품설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한편 (주)에니에스는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원적외선 천정히터 및 원적외선 방사 기능이 적용된 친환경적인 난방필름과 함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탄소볼라드를 국내 최초 개발한 뒤 생산·판매·시공을 하고 있는 탄소 관련 향토기업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신입감사에 전북 김남중 건축사 선출

지난 2월 24일 서울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전북지역 (주)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 김남중 건축사가 신입감사로 선출됐다.

지난 2월 24일 서울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한 김남중 건축사는 제적대의원 645명 중 354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됐다.

전북건축사회 제25대 회장(2013년 3월 ~ 2015년 3월)을 지낸 김남중 신입감사는 원광대학교 건축공학 학사와 동대학 석·박사학위를 취득, 1995년에 건축사 면허를 취득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과 대한건축사협회 사회공헌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남중 건축사는 "신입감사로서 강력해진 우리 협회가 회원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소통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냉철한 견제와 독려의 의무를 지켜가겠다"고 밝히며, "지역 및 시·도회장을 비롯하여 본 협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과 다수의 사회공헌 그리고 크고 작은 조직의 역량 있는 리더로 인정받았던 노후를 쏟아부으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도-시·군 건축과장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

지난 2월 24일 진행... 도민체감형 건축정책 실현 위한 노력

전라북도는 2월 24일 도-시·군 간 소통 및 상생협력을 위한 건축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건축 과장이 참석하여 도민체감형 건축정책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2022년도 건축·주택·도시재생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먼저 건축 분야에서 우리 지역의 멋과 전통을 강조할 수 있는 한옥건축과 탄소중립시대에 적합한 공공건축물 그린모델링 사업 확대 방안과 주택 분야에서는 도와 시군별 특수시책을 비교하여,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전북형 주거복지정책과 놓여온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승인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도의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실현 등을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주시,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오는 3월 1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한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3억 9,416만 원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월 22일 밝혔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87개 동, 지붕 개량은 20개 동이 지원 목표다. 취약계층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지붕 철거와 지붕 개량에 각각 최대 352만 원과 3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자 및 소유자다. 사업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현장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월 1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가구별 철거·개량 작업은 현장 확인을 통한 면적 조사와 철거 및 지붕개량 일정 등을 신청자와 협의 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슬레이트 철거 97동,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했다. 한편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선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자원순환과(063-281-8456)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익산시,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본격화

3월부터 11월까지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만남의 날 운영

익산시가 시민의 다양한 고충 민원 해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 2월 22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방향과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익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김경 위원장(원광대 교수)을 비롯 건축사, 변호사, 교수, 시민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의 위법,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고충 민원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은 3월부터 11월까지 둘째·넷째 화요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명씩 순번제로 직접 민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시가 시민의 다양한 고충 민원 해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 2월 22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방향과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익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김경 위원장(원광대 교수)을 비롯 건축사, 변호사, 교수, 시민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의 위법,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고충 민원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은 3월부터 11월까지 둘째·넷째 화요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명씩 순번제로 직접 민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강이건 건축사 / 올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9
 - 최인규 건축사 / 유천 건축사사무소 / 전북 김제시 중앙로 134-1
 - 이동욱 건축사 / YMDT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55, 4층
- **변경(소재지)**
 - 김정배 건축사 / 제이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총정로 220, 104호
 - 장기호 건축사 / 전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시장길 82, 2층
- **결혼**
 - 심재준 건축사 / 현진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02월 27일(일)
- **부고**
 - 김기수 건축사 / CNS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2월 19일(토)
 - 송영섭 건축사 / (유)영화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2월 25일(금)
 - 유병조 건축사 / 메카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02월 27일(일)
 - 백종남 건축사 / 아도건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3월 01일(화)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정영법 건축사
(주)로운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32번길 3, 4층
Tel. 062-376-5976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49번지 / 대지면적 : 1,211㎡ / 건축면적 : 559.61㎡ / 연면적 : 2,103.61㎡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용도 : 행정복지센터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조적벽돌, 노출콘크리트, 로이복층유리

**광주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우수건축사회 표창 수상
공로회원에 정명철 전임회장과 이영문 부회장도... 신임이사에 정명철 전임회장 선출**



광주건축사회(회장 정인재)는 지난 2월 24일 개최된 대한건축사협회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우수건축사회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건축사회는 2021년 한 해 동안 건축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건축 문화 발전은 물론 협회발전 및 회원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이와 함께 공로회원으로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전임회장((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과 이영문 부회장(이영 건축사사무소)이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됐는데, 특히 정명철 전임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 대외 협력단 활동을 통해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특별공로패 수상자로 결정됐다.



정명철 전임회장 이영문 부회장

이영문 부회장은 광주건축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협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봉사정신으로 건축사의 권익증진 및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해당 수상자들의 시상식은 코로나19로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에서 한꺼번에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오는 3월 23일 서면총회로 개최되는 광주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대한건축사협회 신임이사로 정명철 전임회장이 선출되기도 했다.

**광주건축사회, 건축사공제조합 제7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 수상
지난 3월 3일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신우식 건축사 당선**



지난 3월 3일 서울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건축사공제조합 제7회 정기총회에서 광주건축사회가 공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총 출자좌 464,851좌 중 216,321좌(46.54%) 참석으로 개최된 가운데, 많은 관심이 집중된 신임 이사장 및 비상근감사 선거에서 총남의 (주)에가씨 엠 건축사사무소 신우식 건축사가 총 의결 좌수 293,629좌 중 250,133좌(약 85%)를 득표하여 신임 이사장에, 세종의 (주)테마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진만 건축사가 신임 비상근감사로 만장일치 선출됐다. 이 밖에 비상근이사는 이사장에게 선임을 위임했다.



신우식 신임이사장 박진만 신임 비상근감사

비대칭 EQ 합성보(진동, 응력 우수)

← 응력 크기, 진동 크기에 따른 CASE별 시공순서

EQ공법

- ▶ 일반철골구조에 비해 진동성능이 우수 (최대 45% 향상)
- ▶ 철골 공사비 40% ~ 15% 절감
- ▶ 접합부 내진 성능 및 응력 크기 향상
- ▶ 불필요한 중간기둥 없이 무주공간 활용 (공간 활용성 우수)
- ▶ 주차타워, 상가, 물류창고 적용시 공간활용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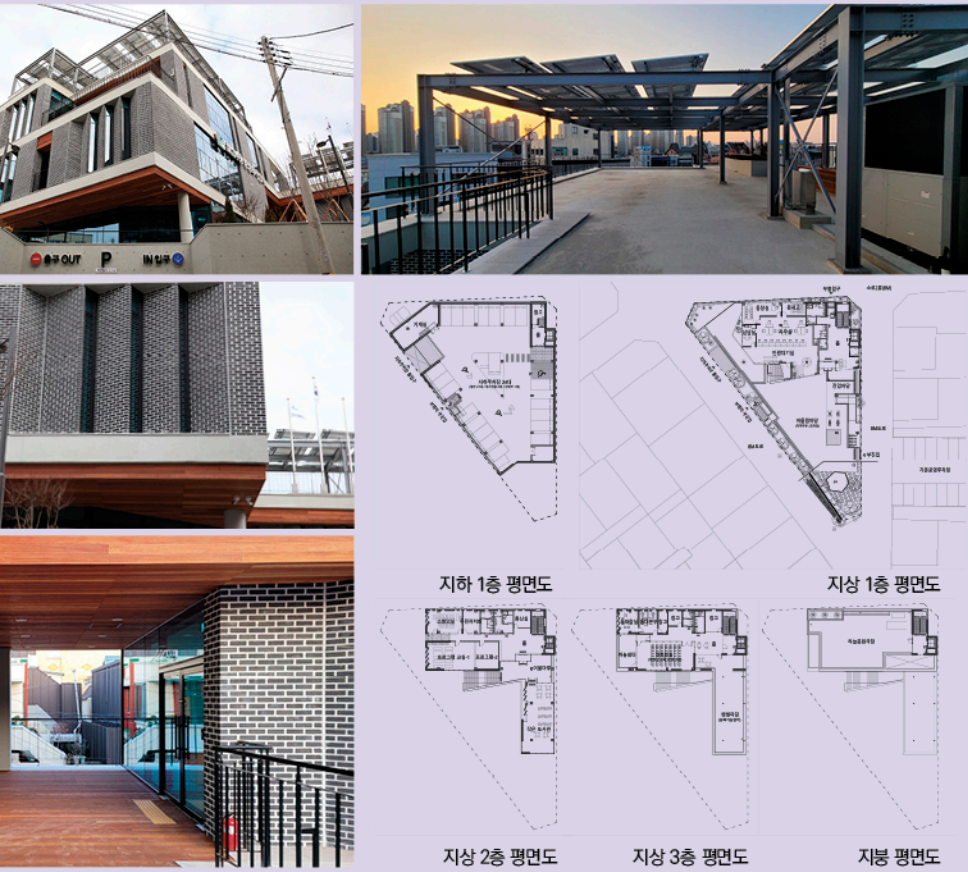
건축구조
기술사회
기술인증서
획득

한국구조물진단
유지관리공학회
기술인증서
획득

관내(강구조,
건설사, 시행사)
누구나
사용 가능

무료
철골구조
경제성 검토

문의전화 1666-5123



• 물리적 환경의 극복

대지는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작은 땅이다. 도시에 자리한 오래된 마을이 가진 여러 인문학적 이야기를 뒤로 한 채, 작은 삼각형 땅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하는 발주처의 프로그램 요구와, 방향성 없이 오르내리며 최고 2m의 높이 차이를 가진 세 도로를 건축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분히 기능의 해결로 귀결되게 만들었다. 여러 번의 현장 조사를 통해, 가장 도로 레벨이 낮은 부분에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여 램프의 길이를 최소화하였고, 각 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동선을 구성하여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친화적 성격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건축물의 배치는 남향에 따른 환경성과 형태에 따른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삼각형 대지의 가장 직각에 가까운 부분을 기점으로 'ㄱ'자로 계획하였다.

• 재료, 기억에 대한 존중

건물을 보며 대화를 하다 보면 '관공서 같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공공건축물로서 갖춰야 하는 피상적인 형태에, 땅이 가진 고유성과 지역성이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지하주차장 공사를 위해 대부분의 땅을 굴착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료에 대한 고민이었다. 금속 마감 등의 이질적인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벽돌과 콘크리트를 외장 재료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외부 반자 마감 등에 목재를 사용하여 자칫 느껴질 수 있는 차가운 이미지가 완화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작은 주택들 사이에서 위압적일 수 있는 규모와 형태의 새로운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과 공유하는 재료의 연속성을 통해 마을 풍경에 섞여진다. 동시에, 비규칙적으로 나열된 유리들이 거리와 반응하며 '공공성'이라는 차별적 이미지를 살며시 부여하고 있다.

신우식 신임이사장은 "더 낮은 자세로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2022년 제35회 정기총회' 서면총회 진행

오는 3월 23일 감사선거 결과와 함께 의결 내용 공고, 서면 결의서 22일까지 접수

성명	유형두 (庾炯斗)	주정호 (朱正浩)
기호	1	2
사진		
사무소명	건축사사무소 가원	종합건축사사무소 터

광주건축사회는 '2022년 제35회 정기총회'를 서면총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회원사의 안전을 고려하여 서면총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3월 23일 광주건축사회관에서 감사선거 결과를 비롯하여 의결 내용에 대한 총회결과보고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3월 초, 회원사에게 총회 서면결의와 관련한 결의서와 정기총회 유인물, 선거공보 등을 동봉하여 회신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회원사는 결의서에 안전별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회신용 봉투에 동봉 후, 3월 22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총 4개의 부의안건이 상정되는데 '제1호의안 : 광주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과 '제2호의안 :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결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2022년 감사선거는 총회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투표(경선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사선거에 유형두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가원)와 주정호 건축사(종합건축사사무소 터) 2인이 출마했다.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건축사 회원 대학생 자녀 지원 위한 장학금 사재출연 3월 11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절차... 1천만 원 출연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3월 2일 정인채 회장이 회원의 자녀양육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회장선거 시 회원들에게 약속하였던 공약을 이행하고자 사재를 출연하여 회원자녀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1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 받아 장학위원회의 면밀한

선발과정을 거친 후, 건축사 회원의 대학생 자녀 약 10여 명에게 총 1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오는 3월 23일 서면으로 개최되는 광주건축사회 정기총회에 초청되어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받게 된다.

광주건축사회 관계자는 "정인채 회장의 사재출연은 회원들에게 약속한 본인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회장 임기기간 동안 매년 지속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도안전관리원, 건축물 관리법 기술자 교육 개설

건축물 정기점검 등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감리자교육 등



국도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센터에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전문성 향상과 법적 의무교육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을 개설했다.

건축물 정기점검 등 점검책임자교육(35시간)은 총 3회차로 2월부터 8월까지, 점검자교육(7시간)은 총 10회차로 3월부터 10월까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교육(35시간)은 총 10회차로 2월부터 10월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신청 방법은 국도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법 기술자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kbmscedu.or.kr/>)에 접속하여 상단에 수강신청 클릭하고, 개설과목 중 '교육 희망 과목' 클릭 후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하면 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로는 국도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센터 교육담당자(Tel. 055-771-4873)에게 문의 바란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나병훈 건축사 / 해담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치평로 20, 4층 404호

• 변경(상호)

- 정영진 건축사 / 유한회사 단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김정일 건축사 / ㈜이에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화정로279번길 2-1, 4층
- 심문기 건축사 / ㈜현진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오월로29번길 11, 1층 101호

• 부고

- 강성철 건축사 / 디자인그룹현대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2월 26일(토)
- 이관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영일 / 부친상 - 03월 06일(일)

전남건축사회, '2022년도 제56회 정기총회' 위임총회로 진행

오는 3월 11일 보성 다비치콘도 제암홀에서... 임원(지역회장)이 위임받는 형식으로



전남건축사회(회장 한형민)는 '2022년도 제56회 정기총회'를 위임총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1일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 제암홀에서 진행되는 위임총회는 임원(지역회장)이 각 지역회 회원으로부터 위임받는 형식으로 성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위임총회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2021년 일반 및 특별 회계 수지 결산서(안) 승인의 건'과 '2022년 일반 및 특별 회계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등 총 4개의 의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농어촌 주택개량 저리 융자 지원

1,459동으로 전국의 20%... 주거환경 개선 귀농 귀촌 촉진 기대



전라남도는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귀농 귀촌 촉진을 위해 노후 주택 개량 또는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전국 7천397동 중 1천459동이다. 이는 전체 사업량의 20%로서 전국 최대 규모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내 농어촌 주택이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 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순으로 시군에서 선정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심사를 거쳐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 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 개축, 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을 연 2%의 낮은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및 2024년까지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사업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금 대출 한도를 신축 6천만 원, 증축·대수선 3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신청 자격자는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 주택 업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전라남도, 드론 활용 스마트 행정 추진

최신 항공영상 기반 3차원 입체 공간정보 구축해, 건축 등 행정업무 지원

전라남도는 3월부터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 도와 시군 역점사업지구 등의 항공영상을 촬영해 평면입체 공간정보로 구축,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2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실과 같은 3차원 입체 공간정보를 구축해 스마트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0개소를 목표로 전남 대표 관광지인 갯벌, 해상풍력단지 예정지 등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촬영하고 수요자의 활용 목적에 맞게 제작해 제공한다. 도로, 철도 등 넓이가 협소하고 길이가 긴 지적확정측량 대상지구는 3D 모델링을 활용한 고정밀 국토조사측량을 통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특히 남악 신도시 내 남악오룡지구를 대상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시범 구축한다. 건축·도시계획·토목·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예측함으로써 시행착오 개선, 정책 결정 정보 제공 등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 극대화가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910년 토지조사 당시 측량 장비의 한계, 해상교통의 어려움 등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고층과 완도의 소규모 무인성 2필지 2천504㎡를 국유지로 신규 등록했다. 또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부지 등 주요 개발 사업지 120개소의 공간정보를 지원,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품질점검 강화

골조공사 중 바닥 시공상태 살피도록 점검 시기 변경

전라남도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골조공사 중 바닥 시공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 시기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계획, 시공, 안전, 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201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품질점검 시기를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골조 완공 후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 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로 나눠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골조단계 점검이 골조 완공 후가 아닌 공사 중에 이뤄지도록 변경해 슬래브 두께, 완충재 설치 상태 등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양인승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주)
전남 순천시 왕지3길 18-28, 202호
Tel. 061-725-6625



대지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506-10번지 외 3필지 / 대지면적 : 2,818.0㎡ / 건축면적 : 473.15㎡ / 연면적 : 2,211.12㎡
건폐율 : 16.79% / 용적률 : 78.46% / 규모 : 지상 5층 / 주용도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또 입주자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현장소장, 감리 등에 사전 배포해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점검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다.

목포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오수관 준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3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목포시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및 오수관 준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매년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단지 내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오수관 막힘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오수관 준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 관내 20세대 이상 212개 공동주택 단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신청 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16일 까지 목포시 건축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현장 조사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최종 결정한다.

광양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지난 3월 2일부터 신청 접수, 대상자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광양시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을 방지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3월 2일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14억 원을 들여 주택 315동, 지붕개량 28동(취약계층 8동, 만 70세 이상 20동), 주택 외(축사·창고 등) 20동 등 363동의 철거·개량비용을 지원하며,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지원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비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일반가구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지원 후 예산이 남은 경우 8월 이후 선정할 계획이다.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하며, 200~500㎡ 이하는 최대 500만 원, 500~1,000㎡ 이하는 최대 1,000만 원 등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건축물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에서 선정한 전문업체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안전하게 추진한다.

순천시, 건축물 옥상·벽면 녹화에 최대 4천만 원 지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발맞춰 지원 확대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건축물의 옥상·벽면 녹화를 지원한다.

시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제한 없이 건축물의 옥상·벽면을 녹화하는 경우에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패시브하우스를 신축하거나 10년 이상 된 주택·주상복합을 패시브하우스로 증축·개축·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건축주 또는 등기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와 설계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순천시 건축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건축과(Tel. 061-749-637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서윤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새하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9-1, 4층

• **변경(소재지)**

- 한삼섭 건축사 / 한국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상사면 매재길 238-9, 2층

• **부고**

- 전진호 건축사 / 진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2월 25일(금)

- 김민영 건축사 / 민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02월 25일(금)

- 남정록 건축사 / 두울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3월 03일(목)

- 최희주 건축사 / 청목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3월 03일(목)



반석기초이엔씨(주)

www.bs-base.co.kr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EcoSM 지반개량 · GeoCon 침하지반보강/복원
마이크로파일 · 팽이 기초 · 로타리파일(헬리컬) · 강관압입파일



배치 계획

- 부지의 좌측 상단에 건물을 배치하고 우측과 하단에는 주차장, 휴게공간을 배치함.
- 조경은 부지의 경계를 따라 배치함.
- 환경적,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서 건물을 동서로 길게 배치하고 좌우 대칭적인 요소를 가미.
- 건물을 최대한 북측으로 배치하여 남측에 주차장 및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
- 도로에서의 소음 차단 및 시선적 개방감을 확보하고자 도로와 건물 사이에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
- 각 동선별 출입구를 별도로 배치하여 안전성 및 기능성을 확보함.

평면 계획

- 민원창구, 사무실 등 상시 근무공간과 실습실 등 교육공간은 남측에 배치하여 일조, 채광, 통풍, 조망 등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 유사기능을 가진 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배치하여 작업능률 향상 도모
- 근무공간, 지원공간, 휴식공간, 서비스공간을 분리하여 계획

입면 및 형태 계획

- 단순함과 메스감이 어울리는 좌·우 대칭적인 형태 계획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단아하고 절제된 형태 계획
-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 감각이 조화되는 외장재료 계획



「땅끝 해남을 리폼하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 원 건축사사무소(주)
 우수작 : 라인 건축사사무소
 * 자료 미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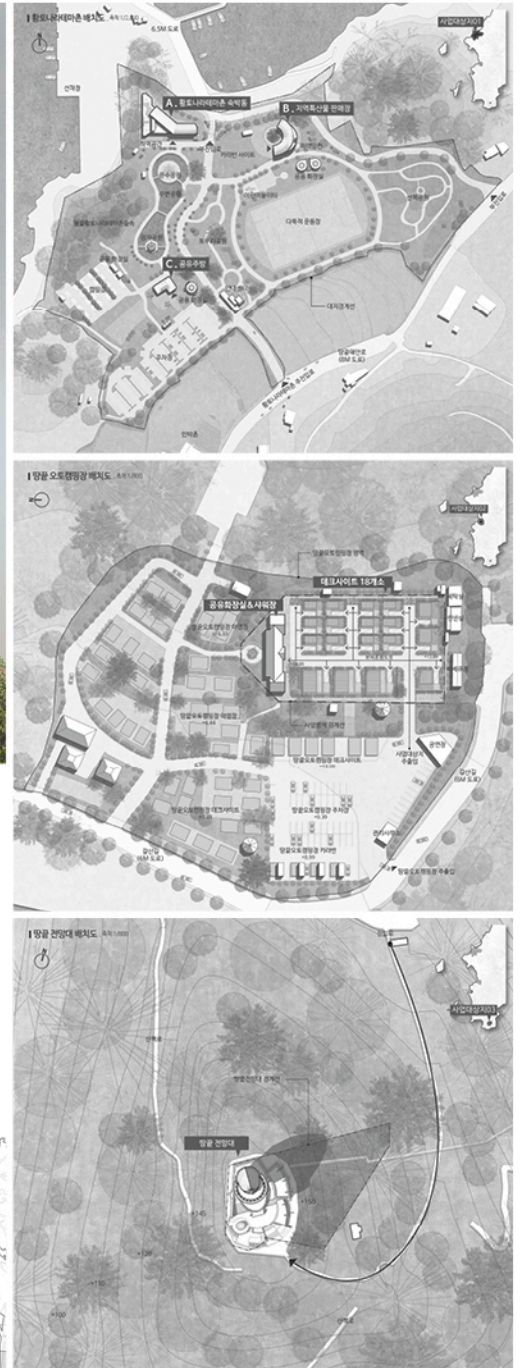
땅끝관광의 거점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표현되는 현대적 감각의 조형미 있는 건축물을 계획하며 지역 공유 플랫폼으로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계획한 사업으로 일반설계공모를 통하여 상징성, 실효성, 공간적 우수성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심사위원 : 정경태(경상대), 윤성환(부산대), 황정하(경북대), 강철욱(건축예고), 박용서(경북대), 오명호(목포대), 김대영(부산대)

- 대지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50번지 일원
- 연면적 : 1,047.66㎡
- 대지면적 : 77,583㎡
- 용도 : 관광휴게시설
- 건축면적 : 2,448.57㎡
- 공사비 : 1,956,998,000원

당선작

원현성 건축사 / 원 건축사사무소(주)



1. 입상을 '확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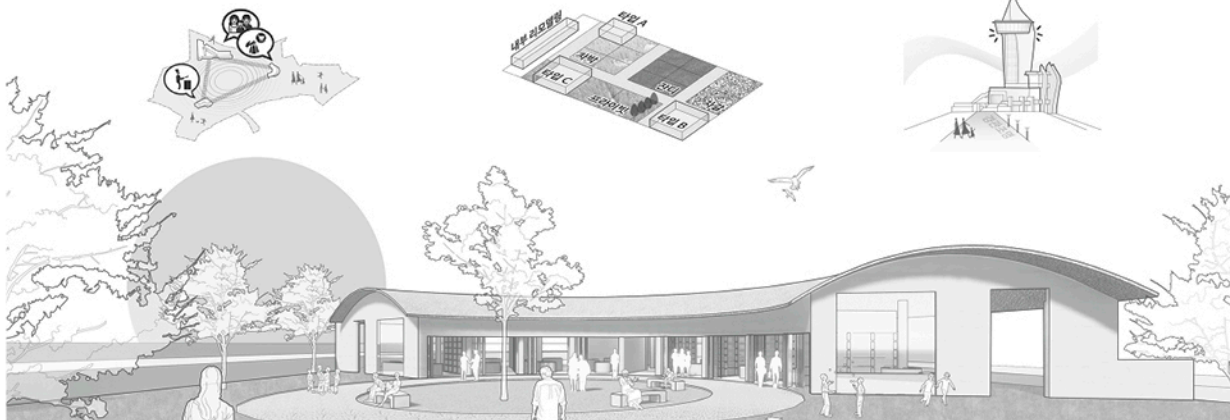
- 트렌드 변화에 맞춘 콘텐츠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지역사회 문화 거점 확보
- 체험형 관광, 공유주방, 판매공간의 연계 및 기반성 확보
- 트렌드 변화에 맞춰 소통, 창작, 변화하는 공간 조성

2. 감성을 '더하다'

-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아늑한 위생시설 재구조화
- 프라이빗 캠핑, 차박 등 다양한 캠핑 콘텐츠 조성
- 노후화된 위생시설 재구조화로 이용객들의 편의 향상
- 보행가로 및 다량한 조경공간 계획으로 색다른 데크사이트 조성

3. 추억을 '배려하다'

- 과거 건축기의 설계의도를 해치지 않는 외부 재료 선정
- 시설 활용도 극대화로 편리한 관광 안내센터 조성
- 시간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가지는 벽의 랜드마크 제조명
- 자연과 보행로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경관 조명 설치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2022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오는 3월 19일 실시

전국 27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광주권은 성덕중학교와 전남공고에서...

2022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이 오는 3월 19일 전국 27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시험 장소는 서울권의 경우 제1시험장인 오주중학교 등 15개 시험장(특별시험장 포함), 부산권은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등 3개 시험장, 대구권은 대구상원중학교 등 2개 시험장, 광주권은 성덕중학교와 전남공고 등 2개 시험장, 대전권은 대전매봉중학교 등 2개 시험장, 인천권은 인천만수여자중학교 등 3개 시험장이다.

시험당일 7시 30분에 시험장을 개방하고, 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시험장 출입과 시험 응시가 불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당국의 관리 대상자 역시 시험 응시가 불가하고, 시험 당일 입실부터 퇴실 시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행정, '클라우드 세움터'로 편리해진다

3월 2일부터 온라인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신속·이용편의 향상

지금까지 복잡하고 번거로운 업무 대응

앞으로는 유연한 업무지원 체계 마련

민원인 가능	공무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대수선·생도변경허가신청 가설건축물 준차기(간접상선)고선청 건축물임대·가설·정기검사 주택조합설립(연경·해산)인가 임대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심의/재심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대수선·생도변경허가처리 가설건축물 준차기(간접상선)고처리 건축물임대·가설·정기검사처리 주택조합설립(연경·해산)인가처리 임대주택사업계획승인처리 건축위원회 심의 처리 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심의/재심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2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2차 후보지 29곳을 선정하였고, 그중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제3차 후보지 공모(2.10~3.21)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지난 3차 서울지역 후보지 공모에 이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와 공동으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모집하는 것이다.

향후 선정된 후보지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 미만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이번 제4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 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4월 4일(월)부터 4월 11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부와 경기도 및 6대 광역시는 기초 지자체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 우선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기초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주민 공람 및 광역지자체 도시계획·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이번 후보지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http://www.reb.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설계공모 개선 TFT 토론회 개최

오는 4월 초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 예정... 유튜브 업로드도...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은 대한민국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진단하는 내용의 '설계공모 개선 TFT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4월 초 개최 예정으로 FIKA가 주최하고, FIKA 건축설계공모 제도개선 TFT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엄철호 선임연구위원이 건축 설계공모 제도의 변천과 현황에 대한 발제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영훈 위원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은 '설계공모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격은 좋아지고 있는가', '설계공모 심사에서 전문성은 담보되어 있는가',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한편, 해당 토론회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행사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학회 제40대 회장에 한양대학교 최창식 교수 당선

지난 3월 2일 선거 결과 발표... 건축 4.0시대 비전 제시 등 주요 공약



대한건축학회 제40대 회장에 한양대학교 최창식 교수가 당선됐다.

지난 3월 2일 대한건축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제40대 회장 선거에 대한 개표 결과, 기호 3번 최창식 후보가 총 투표자(3,627명)의 35.7%인 1,295표를 획득해 기호 2번 박진철 후보(1,292표)를 간발의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지난 1984년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최창식 교수는 한양대 건축공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2005년부터 모교에서 교수직을 수행 중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4기 위원과 한국콘크리트학회 15기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창식 교수는 '건축분야별 인증센터 구축을 통한 다양한 자원 확보'와 '여성연구자·신진연구자를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건축학 인증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축사 자격제도 상생방안 수립', 'BK21 건축분야 지원 확대', '국가계약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을 선도하는 건축 4.0시대 비전 제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는 오는 5월부터 2년간이다.

한국건축가협회 제33대 회장에 경기대학교 천의영 교수 취임

지난 2월 23일 서울 더갤러리 832 라운지에서 열린 '한국건축가협회 정기총회'에서



경기대학교 천의영 교수가 한국건축가협회 제3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건축가협회는 지난 2월 23일 서울 더갤러리 832 라운지에서 '제64회 한국건축가협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천 신임 회장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도시계획 석사와 서울대 건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과 광주비엔날레 광주폴리III 총감독 등을 역임했고, 저서로는 「열린 공간이 세상을 바꾼다」 등이 있다.

그는 "지난 65년이라는 시간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온 한국건축가협회에 벅찬 기대와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두가 열린 협회의 주인공으로 함께하는 한국건축가협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천 회장은 '열린 공간'과 '열린 협회'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실행방안으로 'D. I. Y.(Digital, Interesting, Young)'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향후 건축가협회의 디지털 변환에 주력, 메타버스 등 협회가 새로운 변화의 선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즐거움 협회', '젊은 협회'로 협회의 혁신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천의영 회장 임기는 2024년 2월 28일까지이다.

책 소개 _ 정가원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함께 산다는 것

아브람 더 스반 저 / 현암사 / 2015. 06. 11.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누군가에게 듣고 따라 하고 쓰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건축 또한 마찬가지이다. 과거 농경사회 때도 살 집과 마구간, 헛간 등 건물과 구조물을 세우는 데에는 이웃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때 받은 도움은 차후 이웃이 새집을 지을 때 갚았다.

요즘은 자기가 살 집을 직접 짓는 사람은 없다. 집을 짓는 데에는 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도움의 대상이 이웃에서 벗어나 건축가, 목수, 전기기사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 임금을 얻기 위해, 즉 화폐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은 인간관계, 화폐경제 등의 여러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약속이라도 한 듯 깨지 않고 지켜내고 있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주제를 던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의지하고 요구하는지를 통해 사람들을 묶는 연결고리에 관해 이야기한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초중고를 지나 대학생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는 단순히 동네 친구들과로 형성되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 사귀 친구들이 이전 친구들을 대신하고 대학에 오면 또다시 반복된다.

하지만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 연결 간의 요구사항이 변하는 것 같다. 단순히 노는 목적이 있던 친구에서 서로 취업 걱정을 하고 시험에는 서로 좋은 학점을 위해 경쟁과 의존을 하는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다. 미래에는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면 동료와 상사들과의 네트워크가 생겨 더 많은 사람이 서로에게 의존할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읽으려고 했던 이유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인간관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생각하고자 하였다. 가끔은 이런 네트워크가 지치고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나의 위치에 대해 알고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살아가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



세상사는 느낌 _ 진다엘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다시 시작된 코로나 시대의 학교생활, 그리고 변화된 모습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오미크론 변이에까지 이르러 모든 생활을 제약받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율이 높아 더욱 조심해야 하지만, 다행히 치사율이 낮다는 것을 통해 일상생활의 제약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다. 운영시간 제한과 인원수, 방역 패스 등에 대한 기준을 약화하고 있으며, 코로나와 함께 공존해가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변화를 몸소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대학교 생활인 것 같다. 3월 2일에는 대학교 대부분이 개강한다.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하는데, 근 2년간 보지 못했던 활기찬 모습들이 곳곳에 보이기 시작했다. 비대면으로만 제한되었던 수업들이 상황에 따라 대면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학교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코로나 이전처럼 수많은 학생이 활동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넓은 운동장에서 오랜만에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학생들, 새로 입학한 학생들끼리 번호를 주고받으며 친해지는 모습, 여유롭게 노래를 들으며 벤치에 앉아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을 보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게 되었다. 사소한 모임에도 제약받던 전과는 다르게 내 동기들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물론 수업에 있어서 공지가 내려오면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는 있으나, 오랜만에 제대로 대학을 다니는 기분이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수업방식은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재량에 따라 대면 수업을 하다가도 확진자와의 관계가 형성되면 대면 수업이 중지될 수 있고, 어떤 교수님은 확진 학생들을 위해 대면 수업과 zoom(화상) 수업을 병행하겠다는 수업도 있었다. 이 모든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모르겠으나, 만남의 제한을 조금씩 풀어가는 시기로서 당연하게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이 시대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전처럼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한다. 이전처럼 다양한 건축물을 보러 여행도 다니고, 학생들과 함께 공부도 하며 삶을 더욱더 활기차게 개발하고 싶다. 모두가 이전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어서 상황이 안정되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생활을 즐겼으면 한다.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가시속의 魅力

노랑게 이어가는 탕자는
까칠한 가시가 있어도
하얀꽃과 열매는 예쁘고

주렁주렁 매달린 아카시아꽃
까칠한 가시가 있어도
그윽한 향기는 천리를 간다

붉게 피는 매력의 장미는
까칠한 가시가 있어도
아름답고 화려하듯이
내 마음속의 그대도
까칠한 존재이지만
더욱 예쁘고 아름답다



아키엠

K비대면바우처
새해대박!
최대 280만원지원

문의 02 3462 1336
이기상 건축사직통 010-8276-6158
더 알아보기 www.arkim.kr

놓치면 후회!!

앱 하나로
모든 감리서류!!

5인 동시사용

비상주
상주
해체
석면까지

PDF
도면 업로드
마크업